

李대통령 “경제 살리기 햇불 들자”

외부 행보 적극 나서 “국민 단합” 호소 “지자체장들 투자유치에 매진해야”

이명박 대통령이 쇄고 파동으로 한동안 자제했던 외부 행보가 적극 나서고 있다.

이는 그동안 쇄고 정국이 안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에 따라 경제를 화두로 본격적인 국정 정상화에 나서겠다는 의지가 실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3일 “이제는 경제로, 경제 살리기 위한 햇불을 높이 들 때”라며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코엑스에서 열린 제1회 지역투자박람회 개막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정부 뿐 아니라 기업인, 근로자 그리고 모든 국민이 일치단결해 지금의 어려움을 헤쳐 나가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 경제상황이 매우 어렵고 우리

도 거기에서 예외일 수 없다”면서 “어려운 때일수록 투자를 늘리는 도전정신이 절실하며, 지금의 투자가 내년 이후에는 큰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사회기반시설을 개선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풀며,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정부의 자원에 앞서 지역 스스로의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경소 ‘지역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이라고 확신해 왔으며 이제 ‘글로벌’(글로벌과 로컬의 합성어) 시대를 맞아 국가와 국가간의 경쟁력보다는 지역과 지역간의 경쟁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면서 “지역발전의 관건은 어떠한 기

업을 얼마나 유치하느냐에 달려있는 만큼 투자유치야말로 지방자치단체장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현지 대통령으로 이례적으로 서울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한나라당 전당대회에 참석, “어떠한 역경이 있더라도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 성공한 정권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법과 질서가 무너지고 경제난이 심화되는 등 지금 우리는 국내외 이중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이 도전을 슬기롭게 당당하게 헤쳐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충북도청에서 열린 충북도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외부활동 재개의 신호탄을 올린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오는 8, 9일로 예정된 일본 도야코(洞爺湖) ‘G8 확대정상회의’ 참석 이후에도 잇단 외부행사를 통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단합을 호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노무현 前대통령, 봉하마을 주민과 합평 생태마을 찾아



노무현(오른쪽에서 네번째) 전 대통령 부부가 3일 고향인 경남 김해 봉하마을 주민 30여명과 함께 합평지역 생태공원인 ‘향토와 들꽃세상’을 둘러본 뒤 나비를 날려보내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새로운 세상 발견...배울 것 많다”

노 전 대통령은 이어 취재진과 만나 “이런 세상이 있구나, 새로운 세상을 발견했다. 정말 부럽고 배울 것이 많다”고 소감을 밝힌 뒤 “농촌이 어렵다고 걱정만 하는데 용기를 가지고 지혜를 짜내서 훌륭한 마을을 만들어 존경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많이 배웠고 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보고 돌아간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이에 앞서 봉하마을과 ‘나비연꽃마을 조성사업’을 벌이고 있는 합평군 신광면 연천마을과의 교류협약식에 참석했다.

/홍영기자 redplane@kwangju.co.kr /합평=박영진기자 pyj4079@

‘향토와 들꽃세상’·자연생태공원 둘러봐

노무현 전 대통령은 3일 합평을 방문했다. 고향인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친환경 농촌으로 조성하기 위한 전 단계로 합평의 생태마을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다.

퇴임 후 두 번째로 합평을 방문한 노 전 대통령은 부인 권양숙 여사와 형 건평씨를 비롯 봉하마을 주민 30여 명과 함께 합평 엑스포공원과 해보면 대각리 오두마에 있는 ‘향토와 들꽃세상’, 그리고 합평 자연생태공원을 둘러봤다.

배지 색 점퍼와 바지 차림을 한

노 전 대통령은 엑스포 공원 내부를 꼼꼼히 둘러봤으며, 생태공원인 ‘향토와 들꽃세상’에서는 생태전시관과 국화밭, 정원을 비롯해 주민들이 눈을 개간해 만든 대규모 해바라기밭 등을 관심 있게 둘러봤다.

노 전 대통령은 오두마를 연못에서 이석형 합평군수, 마을 주민들과 함께 생태마을의 발전을 기원하며 나비를 날렸으며, 미리 마련된 평상에서 주민들과 함께 국화차와 오디차, 수박 등을 즐겨 담소를 나눴다.

민주 “강만수 경제팀 교체해야”

통합민주당은 3일 최근 경기악화 대한 책임을 물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중심으로 한 정부 경제팀의 교체를 주장했다.

경기침체 속에서 고물가 현상이 지속되고 스태그플레이션 조짐까지

나타난 데는 강 장관이 주도해온 교환정책의 실패가 결정적 요인이 됐다는 게 민주당의 진단이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표단 및 정책위의장단 연석회의에서 “현 정부의 경제팀이 교환을 정책

을 주도해 교환율이 고물가를 낚고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켰다”며 “강만수 경제팀의 책임문제가 불어났다”고 비판했다.

박영선 최고위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747(연평균 7% 성장, 10년후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7대 경제강국)’을 거론, “747 비행기가 추락했다”며 “추락할 정도면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연희뉴스

총리 유임론 갈수록 무제

경제 장관도 유임 가능성 높아져...개각폭 줄어들 듯

개각을 앞두고 한승수 국무총리의 유임론에 갈수록 무게가 실리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한 총리 유임을 거론하고 있고 이명박 대통령도 최근 들어 총리를 재신임하는 쪽으로 심증을 굳혀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측근은 “이 대통령이 한 총리에 신임을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의 의중 파악에 뛰어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청와대를 전면 개편한 마당에 개각의 폭을 넓히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고 말했다.

청와대 대통령실장·수석 진용을 전면 교체한 데

이러한 총리를 포함한 대쪽 개각을 단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기류는 쇄고 파문과 촛불 시위가 점차 안정을 찾아가는 등 국정이 정상화되는 정국 추이와 맞물려 더욱 증폭되고 있다.

한 총리도 보폭을 넓혀 임명 초기 제한된 활동 영역에서 벗어나 정치·사회 이슈의 중심권에 발을 딛고 있다.

한 총리는 쇄고 파문과 관련, 거의 매일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고위당정회의에 참석했으며 대국민 담화도 발표했다. 축산농가 방문, 부상 정경

위로방문, 총리실 직원·가족과의 미국산 쇠고기 시식 등을 통해 활동력을 배가하고 있다는 평이다.

촛불 시위에 종교계가 가세할 조짐을 보이지 않고, 기독교, 천주교 지도자들과 잇따라 면담, 자체를 요청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 총리 유임 분위기와 함께 개각도 당초 예상보다 그 폭을 줄여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부처 장관들의 경우 최대 3명까지 교체 대상에 포함됐으나 조금씩 유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후문이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경질이 확실한 가운데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교체 가능성 정도가 거론되고 있다.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직사회에서 거부감이 있는 데다 청와대 내의 업무 평가 측면에서 후한 점수를 받지 못해 거취가 유동적일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연희뉴스

관정없는 공부는 낭비일 뿐입니다!

2009학년도 교사 임용시험 대비

서울대 대학원 교육학 전공의 정통과 강의!

박내영교육학

여름방학 기본 문제풀이반 대특강

박내영고시학원 대표전화 529-0090

여름방학 특강! 현재 상담 접수중

개강 7월 4일

광주역과 무등경기장 사이(신안 사거리)

http://www.naeyoung.com

전공국어 최병해 미운용 교수팀 개강 7월 5일

강좌명 및 반구성	개강	특징
국어교육학 최종 이론 완성반	7월 5일(토) 9주 완성 (전강)	국어교육학 기본 교재(신/중/고)로 진행 중·고등국어/화/독/과 교재로 진행
담방: 마운용 교수	7월 7일(일)	최종 마무리 subnote 활용
문학·국어학 최종 이론 완성반	7월 7일(일) 10주 완성 (전강)	문학/국어학 기본 교재로 진행
담방: 최병해 교수	8월 1일(일)	최종 마무리 subnote 활용
문제풀이 기본반	7월 6일(일) 9주 완성 (전강)	연평별 기본 문제풀이집으로 진행
오전	1차 선다형 시험 대비	강의 구성
오후	2차 논술형 시험 대비	7월: 문해(4주) 8월: 국어교육학(3주)·국어학(2주) 9월: 선다형 시험 문제 유형 파악과 훈련 실시 논술형 시험 적용 훈련 실시

공립유치원 임용시험 최고의 합격률을 자랑하는

임마선 유아교육과정

1차 대비 영역별 객관식 문제풀이반

개강 6월 18일, 21일 22일 강의시간: 09:30-17:30

[주차별 강의 내용] 현재 상황별 접수중

1주. 유아교육, 유아교육사상, 분야	7주. 언어 발달과 언어 성질
2주. 교육과정론과 총론	8주. 인지 발달과 과학 교육
3주. 신체발달과 건강 생활	9주. 수학적 교육
4주. 사회성발달 사회 생활 I	10주. 부모 교육, 교사론
5주. 사회 생활 II	11주. 교육과정 운영 I
6주. 예술의 발달과 표현 생활	12주. 교육과정 운영 II

※ 2차 논술형 주관식 문제반 추후 개설예정

엔제 어디서나 만난다!

박내영교육학

인터넷 동영상

에듀뷰넷 www.eduview.net 02816-1646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서구점 ☎ 361-8111 북구점 ☎ 529-8111

교수진 전원 서울에서 출강! 저자직강! 한국경제TV·부동산TV강사진

제18회 공인중개사시험 새출신 전국 수석 2명 배출[현태환 남 48세 최영아 여 31세]

개강 7월 1일 주야 문제풀이특강 (첫진도 시작반)

고용보험가입근로자교육비환급 (핵심이론+단원별문제풀이강좌) 수강료 50%·80% 환급 사전 접수비할

● 전국 최대규모의 공인중개사 전문학원(전국33개 학원제인) ● 최고의 교수진들로 강의 겸하는 학원 위 ● 선배합격자분들이 추천한 1등학원 ● 입문과 심리를 주는 학원 1위

합격률 1위 전국수석합격

새롬행정고시학원

서구점 ☎ 361-8111 북구점 ☎ 268-8111

▶ 동성동 시구청 앞 광주은행 건물 2층 ▶ 학정이전, 오지동 북부경찰서 건너편 새롬빌딩 4층

제19회 공인중개사 10월 26일 시험대비!!

개강 7월 1일

핵심요약정리 + 단원문제 이해

가려서 내용을 핵심요약하여 오늘 배웠던 단원에서 10문제 풀이를 통해 정확한 핵심이론 정리를 통한 최종점검

9~10월은 실전(동형)모의고사 최종문제풀이 과정입니다.

44년 전통!! 합격률 1위!! 전국수석 배출!!

공인중개사 전국수석

본원출신 전국수석

원사접수: 2008.8.18 ~ 8.27 (원사접수대행)

공인중개사·주택관리사 전문 www.lankor.com

광주고시학원

본원 ☎ 227-8003 (구도청 앞 전일빌딩 뒤) 첨단점 ☎ 971-0002 (구백마동 원명빌딩 옆)

=정부는 올해안에 소방공무원 2,228명을 충원할 예정이다(성황리 강의중)=

공무원 완전 대비

행정직, 교정직, 서문직, 관세직, 감사직, 법원직, 검찰직, 교정직, 보훈직, 소방직, 전자직, 특기직, 특고직, 보검직

※ 보건직 전남23명, 전북16명 9월27일, 경기56명 8월2일, 서울29명 (월강중) ※

금년 중·하반기 시험

7월 1일 (주·야반모집) (현재예약접수중)

합격수강 회원모집

● 6개월 (총)회원 80만원 ● 1년 (정)회원 120만원 ● 합격시까지 170만원

=감(感)이 좋은 학원! 『無等』을 찾아주세요!! =

광주 동부경찰서 뒤 (중앙초교 후문앞)

무등고시학원

www.mdgoel.co.kr ☎ 222-4560

웰빙시대 최고의 유망자격증

우리농산물 지킴이 농산물품질관리사

개강 6월 21일(토) - 주말반 -

국가공인 5회시험	수강료 국가 지원
- 초기자격으로 최고의 유망직종	고용보험 가입자
- 농산물품질관리법 29조외7에 의해 고용시설에 농림부 자금 지원	수강료의 80% 환급
▶ 시험: 1차) 8월 31일 / 2차) 11월 9일	

자격취득자 100% 전원 취업완료!!

전남고시학원

전남여고건너편 ☎ (062)236-2468